하나님! 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히1:1~3)

1.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좀 우리에게 낯익은 표현은 아니에요, 말씀이라고 하니까.
본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내 말이 그 말이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하자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라고 하는 말을 바꾸어서, '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다른 소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게 바로 제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여러분, 이 말이 참 편해요.
특히 우리가 주목할 일은 외국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을 때, 외국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장소에서 어느 주제를 가지고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러면 참 고달프지요 고달파요.
제가 어학재능이 워낙 둔해 가지고 잘 못합니다.
기회는 많았어요, 카투사 3년에 36명의 미군들하고만 같이 살았으니까, 꼬박 뭐 3년이지요.
같이 일하는 36명이 전부 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영어를 안 배우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한국말을 가르쳤으니까, 제가 이 영어에 대해 재주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이야기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횡재하는 거죠.
중간 중간에 누가 묻지도 않았고 말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말이 그 말이야'를 영어로 하는 겁니다.
영어도 되게 쉬워요 'That is what I am saying' 인데, 줄인 말로 'That's what I'm saying'
요것만 하면 되거든요 중간 중간.
중간 중간에 That's what I'm saying 만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내 의견을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나온 의견에 대해서, 내가 같은 의견이라는 얘기를 중간 중간에 후렴처럼 끼워 넣었기 때문에 면피하는 거예요, 면피.
내가 장황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의견을 말해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That's what I'm saying' '내 말이 그 말이야'
가만히 듣다가 중간 중간 '내 말이 그 말이야' 요거 한 마디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참 신앙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 어렵다 그러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꼭 강릉까지 와 갖고 하시는 말씀이, 아이 어렵다, 어렵다.
저~기 몽고 울란바토르에서 800km 들어가는 외지에서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근데 거기서 십자가 복음으로 선교전략을 다시 짜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임하시는데, 아! 십자가에서 죽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나는 흙 파서 갖다 묻은 관속에 있는 시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죽으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계획과 프로젝트보다 쉬울 겁니다, 이 길이, 이 길로 끝장을 내는 것이.
여러분, 참 신앙의 길이 그냥 그 말씀만 반복하면 돼요.
'하나님! 제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하나님! 제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요것만 하면 돼요 '제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신앙도 삶도 다~ 평강해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요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를 시작합니다.
히브리서는 참 말이 많은 성경이에요.
누가 썼느냐? 이거 뭐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결론이 없어요.
바울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바나바라는 사람도 있고, 아볼로라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할 때 그 아굴라, 또 누가, 마가 아니면 뭐 1세기 말에 무슨 그 교우 중에 한 사람이다.
없어요, 정해진 결론이 없어요.
근데 연대는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그 전이에요.
그리고 67년에 사도바울이 순교를 당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67년과 70년 그 사이인데,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왜 썼느냐?
특별히 유대인들이었다가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기독교로 전향을 했는데, 같은 유대인 동족들 아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한 그 이상한 사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느냐?
모세의 율법, 600여 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된다는 게, 이게 생각해 봐라 말이 되겠는가?
그래도 좀 애를 쓰고 얻는 게 구원이지, 아니 그냥 믿음 하나 가졌다고 얻는 게 구원이냐, 모세 말이 시퍼렇게 살아 아직 우리 귀에 쟁쟁 울리는데…
자꾸 이렇게 교리적으로 공격을 해대니까,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64년부터 본격적으로 네로가 전국에 걸쳐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유대인 박해는 안 합니다, 유대인의 종교는 로마법상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유대교는 멀쩡한데 너희들은 박해하는 걸 봐라.
그러니 기독교는 제대로 된 종교가 아니다.
자꾸 이렇게 흔들어 대니까, 유대교에서 기껏 마음먹고 기독교로 들어왔는데, 아 이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박해도 견디기가 힘들고, 교리적인 공격도 유대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막~ 가슴을 찢어내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우리가 몇 천년동안 모세의 율법을 지켜왔는데 갑자기, 아! 무슨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맞기는 맞나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그리스도 십자가사건과 연결시켜 줌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떻게 정당하고 타당하고 유일한 구원의 길인가를 확신 있게 확고하게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첫 머리에, 우리가 읽은 1절부터3절까지,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편지인데, 안부 묻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편지에서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곧바로 들어갑니다.
곧바로 주제에 들어가는데, 첫 머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 특히 선민들을 향해서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의 결론이고 말씀의 총화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말씀의 결집이라는 얘기에요, 그 예수님이.

자!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을 걸어오신다는 얘기는, 나의 응답을 기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불교가 철학으로서는 자기 수련의 가르침이 될 수 있고, 종교가 되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원래 종교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니까.
우상숭배 한다.
불상 앞에서 천 배 만 배를 해도, 그 불상은 한 마디도 안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별의 별 종교의식을 그 앞에서 다 치러도 단 한 마디도 안 합니다.
대신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십니다.
우리는 말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대화의 initiative,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상한 종교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initiative를 쥐고 말을 걸어오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원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서 갖고 있었던 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걸어오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속에서, 다른 주제에 다른 issue를 갖고 하나님께 와서 논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화의 initiative와 contents, 내용을 내가 제출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실 때, 그 말씀에 걸어오신 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딴청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딴청 피우지 말라, 어문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걸어오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우리에게 알려진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을 알 때마다 우리가 할 얘기는,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요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요거 하면서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님이라는 말씀의 인격, 인격이신 말씀, 사건이신 말씀, 생애로 전해진 그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동시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최종적이고 최선 최고의 말은 바로 예수다'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라는 말씀에 대해 응답하는 길은,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종적이고 최선의 말씀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봅니다.
자! 이 땅에 오셔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사셨고, 공생애 3년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죽으신 것 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부터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알만큼 뭐 괄목할 만한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기적을 행하고 이런 거는 다른 선지자들에게서도 나타난 거고, 심지어는 이방종교 속에서도 있는 건데…' 라고 하는 의심이 있을 수 있었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밝혀지는데, 그분이 만유의 상속자고 목수의 아들이셨던 그분을 통해서 온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는 얘기입니다.
만유의 상속자고 그분을 통해 세계를 지으셨다는 얘기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같이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서로 일체가 되시는 교제를 나누십니다.
아버지 안에는 아들 예수님이 가득합니다.
아들 예수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가득합니다.
가득하다는 게 뭐에요? 충만하고 만족하고 기쁘다는 얘기에요.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들도 아버지를 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행복감이 넘쳐나서 나타난 결과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도에요.

어떤 의도냐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즐거운 우리 사이의 이 교제가, 다른 인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되겠다!'
다른 인격자들이 이 기쁨을 함께 나눌 때 더 기쁨이 배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든 게, 그래서 계획하신 게 창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아들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을 보내십니다,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예쁘시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신 그 사랑을 계속 보내시는데, 그 아들의 자리에 인격자들이 참여함으로써, '내가 그렇게 예수 아들을 좋아하는 거처럼 좋아할 수 있고, 그들도 예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좋아하듯이, 그들도 나를 좋아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듦으로써, 나와 아들 예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행복한 교류가,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되기를 바란다' 하시고…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을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남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에요, 나 때문에 부모님이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계신 거예요.
사업체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가족 먹고 살라고 사업체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생긴 겁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태어날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잉태가 됐어요, 그러면 아빠가 뭐 합니까?
방 하나를 정해 놓고, 그 방에다가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장난감이고 물품들을 다 사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 안에 가득 찬 물건들은, 그 아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에서 벗어나서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아기 때문에, 아기 때문에.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제 축하를 하는데, 그 방에 들어가 가지고, 천장에 모빌이 달려 있으니까 '아~ 이 모빌이 참 좋네 어디 건가? 중국에서 만들었구나? 우리 아이한테도 이걸 사주면 좋겠네, 여보 어때? 우리 아이한테도 이 모빌하나 사다 줄까?'
그 집에서 주인공이 되는 아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 사업이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그 사업체에 가 있으면서 그 사업체가 존재하게 되는 이유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사업체를 날름 내 관심사로 도둑질을 해버립니다.
그 사업체가 모빌 같은 거라서, 모빌을 보면서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이구~ 아빠가 우리 아기를 너무 사랑하네! 재미있겠네~ 우리 애기가 이 모빌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아빠의 사랑이 담뿍 담겼구나!'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 모빌 나도 가졌으면 좋겠네, 우리 아이를 위해서 가졌으면 좋겠네.'
주인의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 때문에 만들었다, 그러면 사업체에 나가서 우리가 할 말은,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사업체 제 것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사업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식을 바라보면,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거 하라는 얘기에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만 드러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영광, 영광이라는 건 비교가 있어야 돼요.
모든 비교 대상들 중에 일등 할 때 영광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만물을 만들었어요, 만물을 만들었는데 그 만물이 아~무리 하나님이 좋게 만드셨어도, 하나님 자신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인격자로 만들어 놨더니, 아! 이 만물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 보니까 좀 달라요.
사람들이 오병이어가 끝나고 임금 삼으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임금 된다는 게 너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따봉 아닙니까? 따봉?
내가 임금 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다 높아지기 위해서 사는 거고 임금이 높아지는 거의 최고봉이니까.
임금 삼으려고 그러는데 다 뿌리칩니다.
그러면 저 양반은 도대체 속에 뭐가 좋은 게 있나?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로 좋은 거예요, 내가 임금 되는 것보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지으신 만유 그 속에 있는 좋은 것이 많지마는, 어떤 것보다도 좋아서 하나님이 영광된 분이고 일등이신 분이신데, 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되심, 하나님의 일등 되심, 이 세상에서 좋다는 거 다 모아놔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그분의 좋음에 대해서 인정하는 인간이 없는 세상에 오셔 가지고, 주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에 좋은 거 많이도 찾아내고, 많이도 추구하고 있구나, 근데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예수가 사는 모습을 봐라, 예수의 마음 씀씀이를 봐라, 내가 최고다고 하지 않냐? 내가 최고야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동안은 돈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돈에 영광이 있어요.
가져야 될 것 중에 돈을 가지면 최고니까, 그게 돈 많이 번 사람은 돈에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일류대학에 영광이 있어요, 일류대학의 영광, 그래서 일류대학에 자식을 들여보내고 나면, 부모가 일류대학 영광의 광채가 나는 겁니다.
대통령 자리의 영광이 있어요, 대통령 되고 나면 대통령 자리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말씀이 뭐에요? '내가 최고다, 내가 너희에게 제일 좋은 존재다.'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을 뿌리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한테 최고입니다, 이거 하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두 다 돈 많이 버는 게 좋다 그럴 때,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하신 말씀이 뭐에요?
'너에게 진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건, 나 하나뿐이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
'돈도 좋고 권력도 좋고 인류대학도 좋고 오래 건강하게 사는 거 좋고 피부 깨끗하게 늙을 때까지 유지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내게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자는 겁니다.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는, 주님께서 귀신 쫓아냈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본체의 형상이라는 건, 분명히 나사렛 동네에 태어난 목수이신 분이신데, 아! 그분에게서 하나님이 고스란히, 하나님이 조금도 가려짐이 없이, 하나님이 고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인간이 된 예수 안에서, '내가 온전히 거한다, 그러므로 너한테도 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장갑으로 끼고 이 세상에 존재하셨던, 그 상태가 저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원해요, 제가 바랄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대통령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장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제 안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실 수 있기만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예수에게서처럼 그렇게 거할 수 있다.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되게 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시는 생각과 말씀이, 조금도 변화되거나 상함이 없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과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
그대로 우리에게 전이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승천하셨다.
자!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이렇게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다, 왜?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아 하나님이 최고라는 걸 모르고 딴 것을 좋아하면서 만족하기를 원해서 추구하며 살았고 죄인이니까, 그래서 속에 하나님이 들어온 게 아니라, 마귀의 가르침이 들어와서, 마귀의 가르침대로 이끌려갔었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모습을 보면서, 네가 이렇게 죽어야 마땅하다,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
회사에 나가 있잖아요? 회사에 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회사에 나갔을 때도 하고, 밥 먹을 때고 하고, 언제든지 하는 거지요.
길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과 주님의 십자가가 연결돼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회사에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십자가에서 예수가 처참하게 찢기고 찔리고 못 박혀 갖고 가시면류관 쓰고 죽은 것처럼 죽어야 마땅하다’
이때, 회사에서 일 때문에 끙끙 거리다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서 저렇게 주님이 죽은 것처럼 죽어야 될 사람인데, 뭘 고민을 하겠습니까?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말씀이에요.
이제는 십자가를 통과했으니까, 다시 태어나라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시 태어나면 어디로 향합니까?

이젠 다시는 세상에서 돈의 영광을 찾지 않고, 일류대학의 영광을 찾지 않고, 권력의 영광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찾게 됩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다시 태어난 그 말씀이 제 말씀,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제 말씀입니다, 이제는 제가 예수님 따라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로 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창조 이전에 세웠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계획이 뭐였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기쁨으로 교제하고 행복감이 넘치는데, 그 아들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좋아하는 교류 속에 참여하게 하는 것.
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우리 마음이 따라 올라가면서, 승천하신 주님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제 말씀입니다, 제 마음이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 우편에 계신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이 머물러서, 아버지와 주님과의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교제 안에, 내가 참여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 이겁니다.
이렇게,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이고 최선의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종적이고 최선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내용의 사실을 고백하는 일을 잊어버릴 때,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신앙의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최종 최선의 말씀이신 예수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종 최선의 말씀이시기도 하셔서, 언제나 쉬지 않고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반복하는 신앙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